貿易學會誌 제41권 제5호
2016년 11월 pp.41~62

논문접수일 2016. 10. 20
심사완료일 2016. 11. 17
게재확정일 2016. 11. 18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formance and Learning Orientation for the Existing FTA of SMEs in Gwangju and Jeonnam on the Using Intention of a Trilateral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송 윤 아** Yun-Ah Song
강 지 원*** Ji-Won Kang
이 재 은**** Jae-Eun Lee

| 목 차 |

Ⅰ. 서 론
Ⅱ. 관련문헌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메가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통상환경 하에서 광주·전남지

* 이 논문은 201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공동저자
****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조교수, 교신저자

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예정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한·중·일 FTA 관련 정책 수립 시 의미 있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FTA 활용성과, FTA 학습지향성, 한중일 FTA, 중소기업

Ⅰ. 서 론

한국은 2014년 기준 99.5%라는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상당부분이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특히, 오늘날 FTA로 인하여 세계시장의 개방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이학춘, 고준기, 2013),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박철구, 최장우, 2013). 2015년에 한국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신규 FTA를 발효하였고,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현재 한국의 FTA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4월에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발표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은 메가 FTA 대응, 기 체결 FTA 개선,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메가 FTA는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살펴보면 FTA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더욱이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간 협상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의체들에 대한 논의들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추세 속에서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정혜선, 이근화, 2016). 이에 발맞추어 한국도 메가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중·일, 한·중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협상 중

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한·중·일 FTA 협상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15년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한·중·일 FTA 타결을 가속화하는데 큰 틀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한·중·일 FTA의 체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 간의 경제블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교역 비중은 타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각 국가가 지금까지 체결한 어떠한 FTA 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백일,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보면 FTA 체결 시 한국은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도 현재 협상중인 메가 FTA 중에서 한·중·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다른 FTA에 비해서 한·중·일 FTA가 교역 규모가 크며, 시장 규모 및 잠재력이 높고, 원료나 부품 수입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혜연, 제현정,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메가 FTA로서 한·중·일 FTA가 갖는 중요한 실무적·학문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김은경, 2010; 박순찬, 박명호, 2002; 박형래, 장유식, 2010; 박홍석, 2010; 백일, 2015; 서창배, 2011; 홍정륜, 2007; 황기식, 김현정, 2012). 한·중·일 FTA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국가수준(country level)에서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한·중·일 FTA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주로 규명하고 있다(김은경, 2010; 백일, 2015; 서창배, 2011; 이홍식, 이종화, 신관호, 왕윤종, 2004). 이러한 부류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3국간의 교역량이 증가하여 한국을 포함한 3국 모두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컨대, 서창배(2011)는 한·중·일 3국의 무역 의존도를 분석하였는데, 3국간의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3국간의 FTA가 체결된다면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되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한국의 對중국, 對일본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역내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박순찬, 박명호, 2002; 서창배, 2011; 이홍식 외, 2004).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산업수준(industry level)에서 한·중·일 FTA 체결이 여러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박형래, 장유식, 2010; 이상윤, 2005). 이러한 부류의 연구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 이후 각 산업별로 나타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박형래와 장유식(2010)은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부문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별 발전단계, 기술역량, 수출입 상황 등이 서로 상이하여 對중 수출전략과 對일 수출전략을 상황에 맞게 상이하게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서비스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들을 국가와 산업에서 살펴보고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중·일 FTA를 기업수준에서 규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수준(firm level)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준에서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I장에서는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 III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제 IV장에서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소개하고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관련문헌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이전성과(prior performance)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학습 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조직생태학적 관점(population ecology),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등을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의 이전성과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firm's risk-taking behavior)과 전략을 변화하려는 결정(strategic change)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컨대, 조직학습 이론에서는 기업이 이전에 수행한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positive feedback)를 보인다면, 기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행한 전략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보다 부정적인 성과(negative feedback)를 보인 기업일수록 더 큰 전략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하였다(Cyert and March, 1963; March and Olsen, 1976; March and Simon, 1958).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는 조직의 이전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강한 조직적 관성(organizational inertia)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낮은 이전성과를 가진 기업일수록 조직적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전략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Carroll and Delacroix, 1982; Hannan and Freeman, 1977, 1984). 전망 이론에서도 이전 성과를 설명하면서 기업이 불리한 조건(unfavorable conditions)을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려하거나 전략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즉,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전 성과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유리한 조건(favorable condition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전략적 변화를 선택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려는 선택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이전 성과가 낮은 기업일수록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큰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성과와 향후 FTA 활용의지 간의 관계를 기존에 제시된 전망 이론이나 조직 학습 이론이 아닌 자원 및 지식기반 관점(resource and knowledge based view)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 및 지식기반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기업 특유의 전략적 자산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Barney, 1991; Dierickx and Cool, 1989; Wernerfelt, 1984). 즉,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희소하며 가치 있고 경쟁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니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기업의 전략적 자산은 외국기업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해외시장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게 된다(이재은, 박정민, 송윤아, 2012; 이재은, 장련, 최순규, 2013; Hymer, 1976; Makino and Inkpen 2003; Zaheer, 1995). 자원 및 지식기반 관점에서 보자면, 기 체결 FTA를 통해 기업은 FTA와 관련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은 그 기업만의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 및 역량이 되며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Barney, 1991; Diericks and Cool, 1989; Wernerfelt, 1984).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 체결 FTA 활용성과를 한·중·일 FTA 활용의지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상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학습지향성이 기업의 수출성과와 기업의 수출관련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조연성, 박근호, 2010; 황경연, 2010; Slater and Narver, 1995). 학습지향성의 개념은 기업이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학습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조직 내로 유포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강호, 나승일, 2008; 황경연, 2010; Baker and Sinkula, 2002;

Slater and Narver, 1995). 즉, 학습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학습 그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습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게 만드는 특성을 보인다(김강호, 나승일, 2008). 이러한 학습지향성의 향상은 기업이 새로운 지식이나 역량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lliher and Henderson, 2006). 예컨대, 황경연(2010)은 학습지향성과 수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저자는 학습지향성을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학습지향성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즉, Autio, Sapienza and Almeida(2000)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수록 국제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을 한·중·일 FTA 활용의지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고려하였다.

1.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한중일 FTA 활용의지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정보를 고려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내리게 된다. 특히, 과거에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라면 향후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FTA를 활용한 성과가 전무해 FTA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이 이전에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기 체결 FTA 활용성과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성과(prior performance)를 설명하는 전통적 관점들, 예컨대 조직학습 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조직생태학적 관점(population ecology),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을 따르자면, 기 체결 FTA 활용성과가 긍정적이라면 해당 기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이전의 선택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Carroll and Delacroix, 1982; Cyert and March, 1963; Hannan and Freeman, 1977, 1984; Kahneman and Tversky, 1979; March and Olsen, 1976; March and Simon, 1958).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이전성과(prior knowledge)가 좋을수록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환경 하에서 기 체결 FTA 활용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새로운 FTA를 활용하려 하기 보다는 성과가 좋은 기존의 FTA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기 체결 FTA 활용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보다 높은 위험감수행동을 하게 되고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이전성과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들을 따르자

면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새로운 FTA를 활용하려는 의지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 자원 및 지식기반 관점(resource and knowledge based view)에서는 앞선 논의와는 상반된 설명이 가능하다. 기 체결 FTA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자원 등은 기업에게 가치 있고 희소하며 쉽게 모방되기 어려운 그 기업 특유의 지식(firm specific knowledge)으로 축적될 수 있다(Barney, 1991; Dierickx and Cool, 1989; Wernerfelt, 1984). Penrose(1959)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직학습의 주요한 원천이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기 때문에, 기 체결 FTA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은 FTA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Levinthal and March, 1993). 따라서 기 체결 FTA의 활용성과가 높을수록 FTA와 관련된 기업의 경험과 역량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기 체결 FTA의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FTA 학습지향성과 한중일 FTA 활용의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와 관련된 지식과 역량이 요구된다(이상진, 김무한, 김형철, 2009). 따라서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와 관련된 지식과 해당 시장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FTA와 관련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습득되고 학습된 지식이나 역량은 암묵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게 되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Barney, 1991).

예컨대, 황경연(2010)은 학습지향성과 성과간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습지향성을 통한 지식 습득과 활용은 기업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Baker and Sinkula(2002)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학습지향성을 가지는 경우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유포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를 획득하고 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FTA 학습지향성은 기업이 FTA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들을 부서간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학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FTA와 관련된 사전지식(prior knowledge)과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Cohen and Levinthal,

1990),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습득하고 강화할 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FTA의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 체결 FTA의 활용성과와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에 게시된 '2012년 수출유망중소기업리스트', 광주·전남지역의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다만, '수출유망중소기업리스트' 중 FTA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제외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기업리스트'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최종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30개의 중소기업을 설문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e-mail과 웹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설문과 fax, 전화 및 직접방문 등 여러 방법들을 활용하여, 총 72개의 응답(설문회수율은 약 31.3%)을 받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설문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금속 및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업에 속한 기업이 각각 14개사(19.4%)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11개사, 15.3%), 화학물질 및 고무·플라스틱(11개사, 15.3%), 전자부품(4개사, 5.6%),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3개사, 4.2%), 기타(15개사, 2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연구표본의 업종별 분포

	표본 수(개)	비율(%)
1차금속 및 금속가공	14	19.4
기타 기계 및 장비	14	19.4
음식료품	11	15.3
화학물질 및 고무 · 플라스틱	11	15.3
전자부품	4	5.6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3	4.2
기타	15	20.8
합계	72	100

<표 2>는 연구표본 기업들의 기 체결 FTA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한 · 미 FTA라고 응답한 기업이 30개사(4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 ASEAN FTA(20개사, 27.8%), 한 · EU FTA(14개사, 19.4%), 한 · 인도 FTA(5개사,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표본의 수출 및 관심 FTA 분포

	표본 수(개)	비율(%)
한 · 미 FTA	30	41.7
한 · ASEAN FTA	20	27.8
한 · EU FTA	14	19.4
한 · 인도 FTA	5	6.9
한 · 싱가포르 FTA	1	1.4
한 · 칠레 FTA	1	1.4
한 · 페루 FTA	1	1.4
합계	72	100

<표 3> 연구표본의 기업성장단계별 분포

	표본 수(개)	비율(%)
창업기	1	1.4
초기성장기	24	33.3
고도성장기	29	40.3
성숙기	16	22.2
쇠퇴기	2	2.8
합계	72	100

<표 3>은 연구표본 기업들의 기업성장단계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고도성장기라고 응답한 기업이 29개사(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기성장기(24개사, 33.3%), 성숙기(16개사, 22.2%), 쇠퇴기(2개사, 2.8%), 창업기(1개사, 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는 연구표본 기업들의 글로벌화 단계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글로벌화단계(2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개사(6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글로벌화단계(1단계, 16개사, 22.2%), 중간 수준의 글로벌화단계(3단계, 5개사, 6.9%),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단계(4단계, 4개사, 5.6%), 매우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 단계(5단계, 1개사,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표본의 글로벌화 단계별 분포

	표본 수(개)	비율(%)
1단계 (매우 낮은 수준의 글로벌화)	16	22.2
2단계 (낮은 수준의 글로벌화)	46	63.9
3단계 (중간 수준의 글로벌화)	5	6.9
4단계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	4	5.6
5단계 (매우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	1	1.4
합계	72	100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중소기업청(2012) 수출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를 참고하여 i) 한·중·일 FTA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ii) 한·중·일 FT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 iii) 한·중·일 FTA를 위해 인적 · 물적 재원을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iv) 한·중·일 FTA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성공 및 실패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은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학습지향성이다. 먼저 기 체결 FTA의 활용성과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2012) 수출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를 참고하여 기 체결 FTA로 인해 i) 비용 감소, ii) 수출 증가, iii) 경쟁력 강화, iv) 해외직접투자 증가, v) 시장진출 전략 수립 용이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도움이 된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이 됨)로 측정하였다. FTA 학습지향성 역시 부산지방중소기업청(2012) 수출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를 참고하여 i) FTA 관련 지식과 시장정보 습득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생각함, ii)

FTA와 관련된 직원들의 학습은 투자라고 생각함, iii) FTA 관련 지식 정보의 학습은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함, iv) FTA와 관련된 학습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함 등 총 4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들을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시켰다. 먼저, 각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별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집된 연구표본을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 4개 산업더미 변수(1차금속, 기타 기계장비, 음식료, 화학 등)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1차 금속, 기타 기계장비, 음식료, 화학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는 기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각각의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둘째, 기업의 규모와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규모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종업원 수로 측정하고, 그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Björkman, Barner-Rasmussen and Li, 2004; Gupta and Govindarajan, 2000). 기업의 연령 역시 기업의 학습능력이나 해외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기업의 연령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최초로 설립된 연도를 뺀 연수를 측정하여 그 값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Yang, Mudambi and Meyer, 2008).

<표 5> 변수의 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출처
종속변수	한중일FTA 활용의지	i) 한·중·일 FTA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ii) 한·중·일 FT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 iii) 한·중·일 FTA를 위해 인적·물적 재원을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iv) 한·중·일 FTA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성공 및 실패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	부산지방중소기업청 (2012)
독립변수	기체결 FTA 활용성과	기 체결 FTA로 인해 i) 비용 감소, ii) 수출 증가, iii) 경쟁력 강화, iv) 해외직접투자 증가, v) 시장진출 전략수립 용이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도움이 된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이 됨)로 측정	부산지방중소기업청 (2012)

	FTA 학습지향성	i) FTA 관련 지식과 시장정보 습득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생각함, ii) FTA와 관련된 직원들의 학습은 투자라고 생각함, iii) FTA 관련 지식 정보의 학습은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함, iv) FTA와 관련된 학습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함 등 총 4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	부산지방중소기업청 (2012)
통제 변수	산업더미	산업더미(음식료): 음식료 산업은 '1', 그 외 산업은 '0' 산업더미(화학): 화학 산업은 '1', 그 외 산업은 '0' 산업더미(1차금속): 1차금속 산업은 '1', 그 외 산업은 '0' 산업더미(기계장비): 기계장비 산업은 '1', 그 외 산업은 '0'	이재은 외(2013)
	기업연령	기업의 총 사업운영 연수(2013년 - 설립년도)의 로그값	Yang et al.(2008)
	기업규모	총 직원수의 로그값	Björkman et al.(2004), Gupta & Govindarajan(2000)
	내수시장경쟁 정도	i) 국내 시장에는 경쟁업체의 수가 많음, ii)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 iii) 내수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등 총3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	
	정부지원 기대수준	정부가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i) 기술개발, ii) 신규 사업자금, iii) 무역구제에 대한 제도, iv) 생산기지 이전 등의 분야에 있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	

셋째, 내수시장의 경쟁정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치열한 내수시장의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의 경쟁 정도는 i) 국내 시장에는 경쟁업체의 수가 많음, ii)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 iii) 내수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등 총 3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정부가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i) 기술개발, ii) 신규 사업자금, iii) 무역구제에 대한 제도, iv) 생산기지 이전 등의 분야에 있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에 앞서 무응답 편의(non-response bias)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무응답 편의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rmstrong and Oveton(1977)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응답 편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Armstrong and Oveton, 1977). 다음으로 Podsakoff and Organ(1986)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arman's one-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일방법편의의 문제 역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Podsakoff and Organ, 1986).

<표 6>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FTA 학습지향성	기 체결 FTA 활용성과	정부지원 기대수준	내수시장 경쟁정도
FTA 학습지향성1	.858	.227	.097	-.003
FTA 학습지향성2	.867	.204	.031	-.049
FTA 학습지향성3	.789	.340	-.027	.036
FTA 학습지향성4	.848	.340	.046	-.010
기 체결 FTA활용성과1	.391	.640	.093	.133
기 체결 FTA활용성과2	.349	.663	.351	.051
기 체결 FTA활용성과3	.164	.858	.131	.070
기 체결 FTA활용성과4	.158	.857	.183	-.146
기 체결 FTA활용성과5	.363	.793	.116	.009
정부지원 기대수준1	.131	.216	.853	.067
정부지원 기대수준2	.046	.104	.872	-.098
정부지원 기대수준3	-.121	.077	.849	-.105
정부지원 기대수준4	.086	.183	.832	-.046
내수시장 경쟁정도1	.240	-.002	-.042	.711
내수시장 경쟁정도2	-.016	-.041	-.196	.865
내수시장 경쟁정도3	-.363	.121	.095	.739
Eigen Value	3.519	3.385	3.158	1.877
공통변량(%)	21.996	21.159	19.740	11.732
누적공통변량(%)	21.996	43.155	62.895	74.628
Cronbach's Alpha	0.916	0.890	0.887	0.678

<표 6>은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수 항목으로 측정된 독립변수, 통제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다음의 <표 6>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은 모두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요인들의 요인 적재값도 모두 0.5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각 변수들이 타당성 있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값의 최소값은 0.678, 최대값은 0.916로써,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Chatterjee, Hadi and Price, 2006; Joseph, Rolph, Ronald and William, 1998), 본 연구에서는 VIF의 최대값이 1.818(최소: 1.060 , 평균: 1.336)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든 모델에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산업더미(음식료)	1									
2. 산업더미(화학)	−.180	1								
3. 산업더미(1차금속)	−.209	−.111	1							
4. 산업더미(기계장비)	−.209	−.209	−.241*	1						
5. 기업연령	.016	−.034	.018	−.023	1					
6. 기업규모	.044	−.017	.134	−.051	.477**	1				
7. 내수시장 경쟁정도	−.101	.242*	.010	−.137	.177	.023	1			
8. 정부지원 기대수준	−.017	−.036	.048	−.087	.010	.048	.193	1		
9. 기 체결 FTA활용성과	.132	−.095	.190	−.114	−.040	.218	.001	.275*	1	
10. FTA학습지향성	.049	−.132	.025	−.051	−.227	.032	−.047	.398**	.567**	1
평 균	.153	.153	.194	.194	2.583	3.323	3.273	3.771	3.045	3.715
표준편차	.362	.362	.399	.399	.669	1.186	.641	.524	.813	.696

주)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최종적인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8>에서 모델 1은 독립변수들을 제외하고 통제변수들만을 분석에 포함시킨 기준 모델이며, 모델 2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수준(p<0.001)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FTA와 관련한 가시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한·중·일 FTA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2를 보면 통제변수인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수준(p<0.05)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체결 FTA성과(p<0.05)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FTA학습지향성(p<0.001) 역시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

<표 8> 다중회귀 분석 결과

		한·중·일 FTA 활용의지	
		Model 1	Model 2
통제 변수	산업더미(음식료)	.140 (1.175)	.104 (1.237)
	산업더미(화학)	−.022 (−.187)	.061 (.739)
	산업더미(1차금속)	−.020 (−.167)	−.036 (−.424)
	산업더미(기계장비)	−.029 (−.241)	.008 (.094)
	기업연령	−.153 (−1.236)	.057 (.631)
	기업규모	.195 (1.583)	.049 (.556)
	내수시장 경쟁정도	.055 (.475)	.083 (1.032)
	정부지원 기대수준	.461**** (4.212)	.180** (2.166)
독립 변수	기 체결 FTA 성과		.219** (2.290)
	FTA 학습지향성		.569**** (5.722)
	R^2	.287	.668
	Adjusted R^2	.197	.613
	R^2 change		.381
	F	3.173***	12.267****
	F change		9.094

㈜ 회귀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은 t값.
주) * p<0.1, ** p<0.05, *** p<0.01, **** p<0.001(양측검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7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성과를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들(조직학습이론, 조직생태학, 전망이론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가 기업의 경험적 자산으로 활용되어 한·중·일 FTA 활용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FTA 활용의지를 갖는데 필요한 역량을 FTA 학습지향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TA의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각각의 FTA마다 정해져있는 원산지 규정을 지켜야 하며(Jones, 2015), FTA와 관련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이 때, FTA 학습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FTA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습득한 자료를 조직 내 확산하는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한·중·일 FTA 활용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전성과를 설명하는 기존의 많은 관점들과는 다르게 자원 및 지식기반관점을 바탕으로 이전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즉, 기존의 관점들이 이전성과와 위험추구행동 및 전략적 변화 간의 관계를 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원 및 지식기반관점 하에서 이전성과(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위험추구행동 및 전략적 변화(한·중·일 FTA 활용의지) 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가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FTA 활용에 관한 정보와 활용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FTA 활용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향후 체결될 FTA의 활용의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에 관하여 긍정적 검토와 실행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의 선행요인들을 기업수준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한·중·일 FTA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국가수준이나 산업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수준에서 한·중·일 FTA 활용의지의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의 230개 표본 중 72개의 중소기업만이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의 수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응답자가 각 기업마다 한 명이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

서는 기업마다 복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 내부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점이다. 예컨대, 외부환경의 변화정도, 기술의 변화정도 등과 같은 FTA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강호·나승일(2008), "중소기업에서의 학습지향성, 학습행동, 조직환경 및 학습성과의 인과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pp.171-192.

김은경(2010), "한·중·일 FTA 체결의 정치경제적 의의," 「CEO Report」, 제1호, pp.1-23.

박순찬·박명호(2002), "한·중·일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CGE 모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pp.35-66.

박철구·최장우(2013),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3-88.

박형래·장유식(2010),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pp.129-157.

박홍석(2010),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제13권 제1호, pp.153-173.

백일(2015), "한중일 FTA: 상생의 관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1호, pp.193-227.

부산지방중소기업청(2012), www.smba.go.kr/busan.

산업통상자원부(2016), www.motie.go.kr.

서창배(2011),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필요성 연구: 중국중심의 경제통합인가?" 「China 연구」, 제10권, pp.417-444.

이상윤(2005),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FKI Issue Paper,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진·김무한·김형철(2009),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55-174.

이재은·박정민·송윤아(2012), "한국본사의 지원수준이 해외 자회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본사의 통제수준, 본-자회사 간 사회적 교류수준의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제23권 제2호, pp.79-107.
이재은·장련·최순규(2013), "본사의 지원수준과 통제수준이 해외 자회사의 탐색적 역량과 활용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제17권 제2호, pp. 109-139.
이학춘·고준기(2013), "향후 한중일간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에 관한 검토," 「강원대학교 강원법학」, 제38권 제1호, pp.273-304.
이혜연·제현정(2015), "무역업계가 바라본 新FTA 추진 전략: FTA 추진 우선대상 및 기 체결 FTA 개선 사항," 「Trade Focus」, 제14권 제27호, pp.1-15.
이홍식·이종화·신관호·왕윤종(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서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정혜선·이근화(2016), "주요국 2015년 FTA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Trade Focus」, 6호, pp.1-97.
조연성·박근호(2010), "외부환경과 학습지향성이 수출시장지향성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상품학연구」, 제28권 제3호, pp.1-20.
홍정륜(2007),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권, pp.287-311.
황경연(2010), "수출기업의 시장지향성 및 학습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pp.271-295.
황기식·김현정(2012), "지식재산권 이론을 통해 본 한중일 FTA 협상 시의 시사점," 「국제정치연구」, 제15권 제2호, pp.171-190.
Armstrong, J. S., and Overton, T. S.(1977), "Estimating Nonresponse Bias in Mail Survey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4 No.3, pp.396-402.
Autio, E., Sapienza, H. J., and Almeida, J. G.(2000), "Effects of Age at Entry, Knowledge Intensity, and Imitability on International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3 No.5, pp.909-924.
Baker, W. E., and Sinkula, J. M.(2002), "Market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Product Innovation: Delving into the Organization's Black Box," *Journal of Market-Focused Management*, Vol.5 NO.1, pp.5-23.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99-120.
Björkman, I., Barner-Rasmussen, W., and Li, L.(2004), "Managing Knowledge Transfer in MNCs: The Impact of Headquarters Control Mechanis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35 No.5, pp.443-455.
Carroll, G. R., and Delacroix, J.(1982), "Organizational Mortality in the Newspaper

Industries of Argentina and Ireland: An Ecological Approa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7, pp.169-198.

Chatterjee, S., Hadi, A. S., and Price, B.(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Wiley-Interscience.

Cohen, W. M., and Levinthal, D. 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pp.128-152.

Cyert, Richard M., and March, J. G.(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NJ: Englewood Cliffs.

Dierickx, I., and Cool, K.(1989),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 *Management Science*, Vol.35 No.12, pp.1504-1511.

Gupta, A. K., and Govindarajan, V.(2000), "Knowledge Flows with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1 No.4, pp.473-496.

Hannan, M. T., and Freeman, J.(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No.2, pp.149-164.

Hannan, M. T., and Freeman, J.(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2 No.5, pp.929-964.

Hymer, S. 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Vol.14, pp.139-155. Cambridge, MA: MIT Press.

Jones, V. C.(2015),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oseph, F. H., Rolph, E. A., Ronald, L. T. and William, C. B.(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FL: Prentice Hall.

Kahneman, D., and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Vol.47 No.2, pp.263-291.

Levinthal, D. A., and March, J. G.(1993), "The Myopia of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4 No.S2, pp.95-112.

Kelliher, F., and Bernadette Henderson, J.(2006), "A Learning Framework for the Small Business Environment,"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0 No.7, pp.512-528.

Makino, S., and Inkpen, A. C.(2003), "Knowledge Seeking FDI and Learning across Borders," *Handbook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pp.231-252.

March, J. G., and Simon, H. A.(1958),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March, J. G., and Olsen, J. P.(1976),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e Ambiguity of the Past," A*mbiguity and Choice in Organizations,* Vol.2, pp.54-68.

Penrose E. T.(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odsakoff, P. M., and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Vol.12 No.4, pp.531-544.

Slater. S., and Narver. J.(1995), "Market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59, pp.63-74.

Wernerfelt, B.(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No.2, pp.171-180.

Yang, Q., Mudambi, R., and Meyer, K. E.(2008), "Conventional and Reverse Knowledge Flow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34 No.5, pp.882-902.

Zaheer, S.(1995), "Overcom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8 No.2, pp.341-363.

The Effects of Performance and Learning Orientation for the Existing FTA of SMEs in Gwangju and Jeonnam on the Using Intention of a Trilateral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Yun-Ah Song
Ji-Won Kang
Jae-Eun Lee

Abstract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formance and learning orientation for the existing FTA on the intention to use a trilateral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located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s of performance for the existing FTA and intention of a trilateral FTA. This result suggests that SMEs' performance feedback can be used as an asset of corporate experience and will be helpful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use a trilateral FTA by contributing to hav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f companies. Secondl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MEs' learning orientation about FTA and intention to use a trilateral FTA. This result indicates that SMEs have more learning orientation for FTA. They actively acquire and diffuse information. These activities can be helpful for having prior knowledge and absorptive capacity. In conclus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using intention of a trilateral FTA by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feedback and learning orientation.

<Key Words> Performance Feedback on FTA, FTA Learning Orientation, Korea-China-Japan FTA, SMEs